



**나주대학
여자야구단**

스포츠 포커스

치고 ... 던지고 ... 달리고 ...

못 말리는 男 다른 열정

화요일인 지난 25일 나주체육공원. 하나, 둘, 셋, 넷 힘찬 구령 소리에 맞춰 야구선수 13명이 운동장을 돌고 있다. 몸 풀기가 끝나자 곧바로 타격연습에 들어간다.

'강' 알루미늄 배트에 부딪히는 과열의 소리가 경쾌하게 들리지만 공은 투수 앞을 벗어나지 못한다. "자세가 구부러져있어, 다리에 힘을 더 주란 말야"

감독의 호통이 매섭다. 감독은 전국에서 '그냥 야구가 좋아' 모여 든 열혈 야구팬들이다.

잠시 휴식시간. 모자를 벗고 땀을 닦는 모습을 보니 모두 여자다.

여자 야구단? 그렇다. 바로 전국 대학 중 최초로 창단된 나주대 여자야구단이다.

오는 5월 14일 정식 창단식을 가질 예정인 나주대 여자야구단은 지난 1월 13명의 선수들이 모여 결성됐다.

이들은 전국에서 '그냥 야구가 좋아' 모여 든 열혈 야구팬들이다.

그러다 보니 선수들의 구성도 다양하다 못해 특이하다.

52세 주부에서부터 39세 직장인, 20살 대학 새내기까지 연령층도 천차만별이다. 경력은 더욱 별나다.

태권도 5단 김혜정(27·내아수), 필드하기 선수 김수미(22·외아수), 사진작가 김여름(23·부수), 농구선수 이우영(26·부수·주장), 경호원 출신 이민정(24·부수), 주부 박형옥(52·내아수)씨 등.

이처럼 독특한 이력을 소유한 이들에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야구를 즐

선수단, 20세 새내기부터 52세 주부까지 '천차 만별'

을 전국 춘계대회 우승-"조만간 세계제패 기대하세요"

아하고 너무도 사랑한다는 것. 야구 입문기도 독특하다.

주장인 이유영씨와 투수 이민정씨는 자매사이다.

인천의 딸만 넷인 딸 부자집에서 셋째와 막내로 태어난 이들은 언니 이유영씨가 신문에 난 여자 야구단 창단 기사를 보고 민정씨에게 입단을 권유했다. 결국 둘다 야구에 입문했다.

초기에는 부모님의 반대로 심했지만 이제는 열성팬이 됐다고 한다.

둘째 언니는 이종격투기 선수란다.

또 팀에서 가장 만연인 주부 박형옥씨의 야구 입문기도 유별나다.

완도가 고한 박씨는 지난 82년 국내 프로야구 창단부터 열렬한 해태 타이거즈의 팬이었다. 우연히 85년 부산으로 시집을 가게 된 박씨는 롯데팬인 남편과 선의의 응원 경쟁을 하며 프로야구에 폭 빠져들었다.

"프로야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여자가 야구를 할 곳이 있어야죠"

박씨는 2005년 봄 언론을 통해 여자야구 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산여자 빈 클럽'이란 사회인 야구단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우연히 배트를 잡았다.

하지만 1주일만에 한번씩 연습하는 '찐찐 야구'에 갈등을 느꼈던 그는 우연히 나주대에

서 야구팀을 창단한다는 소식에 무조건 짐을 꾸렸다.

"당시 머릿속엔 그곳에 가면 매일 야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뿐이었어요. 물론 남편도 찬성했지요. 열심히 해서 여자팀 하나 창단할래요"

이러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들이 모여 팀을 이루다 보니 야구에 대한 열정은 넘쳐나지만 실력은 아직까지 '글썽'이다

그때도 특유의 패기로 지난 3월 국내 여자 야구 사상 첫 공식 개최된 제1회 2006년 전국 춘계 여자야구 대회에서 6개팀 중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팀 에이스 이유영은 최고 구속 100km/h의 '강속구'를 뿌려대고 김여름도 직구와 슬라이더가 일품이라는 게 감독의 주장이다.

여자 야구지만 운동장의 크기와 일반물은 남자와 여자의 모두 같다. 그러다 보니 국내 여자야구에선 아직 훈련이 없다. 팀내 투수이자 우타자인 이민정 선수의 목표는 그래서 첫 훈련이다.

이들의 희망은 이처럼 모두 당차지만 야구를 제대로 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게 이들을 힘들게 한다.

나주대 야구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5시까지 하루 4시간,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도높은 타격



지난 1월 창단한 나주대 야구단의 이경훈 감독을 비롯, 김용신 코치 및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경훈(감독), 박정희(내야수), 이유영(투수), 김여름(투수), 정이슬(외야수), 박형옥(내야수), 이민정(투수), 조혜미(내야수), 이오영(포수), 김혜정(내야수), 김용신(코치).

과 수비 연습을 병행한다.

하지만 이 정도의 훈련량은 이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

야구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는다.

가족사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연습장인 나주 체육공원으로 가기 위해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결국 셔틀버스의 운행시간에 맞춰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학교의 지원도 없어 변변한 야구장비 하나 없다.

그나마 일부 장비는 외상으로 구입했지만 이마저도 결국 감독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고교 야구인 출신인 이경훈 나주대 감독은 "창단을 꾀지만 선수들의 의욕이 너무 강해 조만간 세계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주위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 준다면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여자야구단 어떻게 커 왔다

한국 여자야구의 역사는 짧다.

한국 여자야구는 지난 2004년 3월 '비밀리에'가 창단되면서 그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당시 일본에서 여자 사회인 야구선수로 활동하던 안향미씨가 감독 겸 선수로 합류해 팀을 갖췄다.

같은해 7월 일본에서 열린 제 4회 세계여자야구 월드컵 시리즈에 참가했으나 홈런 6개 16, 일본전 0대 53, 캐나다전 0대 27 등 처참한 스코어로 무너졌다. 이를 계기로 '나인빅스', 부산반, 홀릭스, 울인, 대구 로얄 페밀리, 광주 소원 야구단 등 모두 11개 여자야구팀이 태어났다.

2005년 4월에는 '대한민국 여자야구협회'가 공식으로 발족됐고 올 1월 나주대학이 전국 대학 사상 처음으로 여자야구단을 창단했다.

현재 광주·전남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부산 등에서 지방협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18일 부산에서 제 1회 춘계전국 여자야구대회가 개최됐고 오는 5월에는 화순에서 협회창립 전국 여자야구대회도 계획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건은
본사 시판부(062)222-8111

1인분 200g 정량

국내산 최고급 생 삼겹살 전문 3,800

사랑방

(주) 사랑방프랜차이즈

062-265-8900

www.생삼겹살.com
www.sarangbang3800.com

| | | | | | | | | | |
|-----------------|---|-----------------|------------------|----------------|--------------------|----------------|----------------|------------------|-------------------|
| OPEN 예정점 | <p>담양 담양점 5월 1일 open 예정 순천 금강점 5월 10일 open 예정 순천 남내점 5월 10일 open 예정</p> | | | | | | | | |
| 사랑방 대주점 | 사랑방 문흥점 | 사랑방 일곡점 | 사랑방 경신여고점 | 사랑방 손가네 | 사랑방 현대점 | 사랑방 용두점 | 사랑방 영주점 | 사랑방 진대점 | 사랑방 광명점 |
| 사랑방 버들점 | 사랑방 삼촌점 | 사랑방 종암점 | 사랑방 마재점 | 사랑방 농성점 | 사랑방 한진(농성)점 | 사랑방 운남점 | 사랑방 화정점 | 사랑방 상무점 | 사랑방 대인점 |
| 사랑방 신가점 | 사랑방 철단점 | 사랑방 송정점 | 사랑방 쌍암점 | 사랑방 비야점 | 사랑방 극락점 | 사랑방 산수점 | 사랑방 구서점 | 사랑방 충정점 | 사랑방 금호점 |
| 사랑방 봉선점 | 사랑방 무등점 | 사랑방 백운점 | 사랑방 주월점 | 사랑방 옥곡점 | 사랑방 화순점 | 사랑방 나주점 | 사랑방 영광점 | 사랑방 운암점 | 사랑방 서신점 |
| 목포지사 | 사랑방 창평점 | 사랑방 부영점 | 사랑방 하당점 | 사랑방 상동점 | 사랑방 연산점 | 사랑방 보건점 | 사랑방 무안점 | 사랑방 현대삼호점 | 사랑방 자유점 |
| 사랑방 해남점 | 사랑방 비파점 | 사랑방 mbc점 | 동남부지사 | 사랑방 순천점 | 사랑방 조례점 | 사랑방 안양점 | 사랑방 여서점 | 사랑방 북동점 | 지사 및 가맹점모집 |